

중소기업 96% “한국경제 위기”

중기중앙회 700여명 조사

율성장률 3% 안팎

중소기업들은 한결같이 현 경제 상황을 위기국면으로 여기고 있으며 상당수를 올해 경제성장을 3% 내외가 될 것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7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상황 인식조사’의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의 96.0%는 ‘현 경제상황이 위기상황’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48.9%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나쁜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바라보고 있었다.

중소기업인들은 현 상황을 위기 국면으로 여기는 이유로(이하 복수 응답) ‘고유가와 원자재값 폭등 때문’(77.1%)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물가불안’(25.1%)과 ‘촛불 시위 등 사회불안’(25.0%), ‘정부정책의 실패 상설’(22.6%) 등으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위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중소기업들은 우선 ‘원가절감’(39.8%)과 ‘구조조정 및 감원’(34.4%), ‘거래처 다변화 모색’(28.8%)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특별한 대책이 없다’(24.3%)거나 ‘휴업 또는 폐업을 고려’(26.1%)하겠다는 곳도 적지 않았다.

올해 경제성장을 데 대해서(단수 응답) 중소기업 대부분은 ‘3% 미만’(47.7%)이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이어 ‘3%대’(28.8%), ‘4% 초반’(16.6%) 등의 순으로, 애초 정부가 목표한 경제성장을 수준과 중소기업인들의 전망간 차이가 많이 났다.

/연합뉴스



밀짚모자의 계절

광주신세계 백화점 ‘레노마’ 매장에서는 여름파션의 필수품인 밀짚 모자를 판매한다. ‘라피아’라는 소재로 만든 이 모자의 가격은 7만~20만원이다.

(광주신세계 제공)

간장약·파스·비타민C 등

일반 약값도 인상 도미노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제약업체에 따르면 원·부자재 가격 인상 여파로 비타민 함유 의약품과 파스 제품은 이달 들어 공급 가격이 약 10% 가량 인상됐다.

대웅제약은 이달부터 연매출액이 500억원에 달하는 ‘블루버스터’ 간장약 ‘복합 우루사’(100캡슐)의 공급가격을 약 10% 인상했다. ‘복합 우루사’는 기존 우루사 성분에 각종 비타민이 추가된 일반의약품이다.

대표적인 비타민C 제품인 고려은 단의 ‘비타민C’도 1일자로 공급가격이 25% 인상됐다.

유명 파스 브랜드 신신파스도 같은 날 공급가격을 5~10% 인상했

다. 신신파스 관계자는 “파스 원료인 섬유와 층전가스, 용기 등 원·부자재 가격이 모두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파스 제품 ‘케토롭’을 판매하는 태평양제약도 가격 인상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태평양제약 관계자는 “원가 인상으로 10~15% 가량 가격인상이 필요할 실정”이라며 “협력업체들과 논의해 가격인상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의약품 가격은 지난 3~4월에 본격적으로 인상되기 시작한 이래 업계 전반에서 인상 도미노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일자리 창출’ 팔 걷은 대기업

“올 7,700명 더 뽑겠다”

경제 5단체장 회견…中企 1사 1인 추가 채용 캠페인 전개도

경제 5단체장들은 3일 “대기업은 올초 목표했던 수준 보다 10% 이상 신규 채용을 늘리고 중소기업은 1사(社)1인(人) 추가 채용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석래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 무역협회 이희범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수영 회장 등 5인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 아셈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들은 올초 신규채용 목표를

지난해 보다 18.3% 많은 7만7천500명으로 잡은 바 있어 이날 발표된 10% 추가 채용 계획은 기업들이 7천700여명을 추가로 뽑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관련, 조석래 회장은 “전경련 조사 결과 현재 30대 그룹은 올해 초 발표한 신규 채용계획의 50%를 조금 넘게 달성한 상태”라고 전했다.

1사1인 추가고용 운동의 기대효과의 경우, 중소기업 301만 7천787개 중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10%만 캠페인에 동참

한다면 2만3천개의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셈이라고 중소기업중앙회측은 설명했다.

경제 5단체장들은 “기업 투자 및 고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며 대·중소기업 공동으로 전국 순회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일자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우수 인력의 취업기회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노조는 불법파업을 자제하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경제살리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치권도 국민의 총의를 모아 경제난 극복에 앞장서 달리”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지방 미분양 해소 조치 취하겠다”

1주택 장기보유자 세금 감면 검토

강만수 재정부 장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부동산 외화)는 새 정부의 공약 사항”이라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아울러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기본 원칙을 이달 중 확정하고, 대내외 견실 중단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장을 나타냈다.

강 장관은 이날 케이블 방송인 MBN 프로그램에 출연해 최근 경제 현안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강 장관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에 대해서는 (종부세·양도세 외화) 공약사항인 만큼 필요한 조치를 하겠지만 아직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서 “정기회계 때는 관련 법안을 준비해서 추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최근 지방 미분양 해소

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건설업체는 어렵다고 하는데 다시 현장을 조사해 필요하면 새로운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는 지방 2주택 규모의 외화 등을 물론 수도권 지역의 재건축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다만 새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를 제연해서는 안된다는 전제 하에 필요한 부분에서 필요한 만큼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최중경 차관 “금리 인상·인하 둘다 어렵다”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일 “세계적인 조류를 볼 때 (정책)금리를 인상하기도 인하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최중경 차관은 이날 KBS와 BBS 라디오에 출연해 “금리를 인상하면 어려운 경제가 더 위축되고 인하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한다”며 “금융통화위원회들이 그때 그때 상황을 봐서 신중한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는 금리 인상과 인하 모두 상당한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는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는 것 이 좋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차관은 물가 상승 상황에 대해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기 때문에 유가·곡물과 같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며 “어려움을 나눠서 견디고 절약을 유도하는 것이 정통

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는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 당분간 검토하지 않겠다”며 “어려운 사람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 더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는 “철도·상수도·쓰레기봉투·고속도로통행료를 동결하고 전기·가스 요금은 인상 시기를 분산해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시내버스와 택시 요금 인상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00大 기업 임원 평균 연봉 8억원

국내 상장 100대 기업 등기임원(CEO)이 받는 평균 연봉은 8억1천470만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영전문지인 월간 GL(Global Leader)은 3일 지난해 매출액 기준 상장 100대 기업이 등기임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은 3천632억여원에 달했고, 이 중 상위 10개사의 등기임원 급여 총액은 약 1천637억원이었다고 밝혔다.

등기임원 1인당 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은 삼성전자로 133억원을 기록

했고, 삼성물산(37억2천300만원), 삼성증권(31억8천500만원), 삼성테크윈(25억9천500만원), 신한금융지주(21억8천800만원), 한화(18억3천100만원), 현대자동차(18억2천600만원), 현대모비스(18억2천100만원), GS건설(16억6천170만원), STX엔터테인먼트(15억9천300만원) 등의 순으로 10위권 기업 중 상위 4개사가 삼성 계열사였다.

상장 100대 기업이 지난해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은 38조6천974억여원이었고, 이중 상위 10대 기업

의 직원 급여 총액이 21조3천329억원에 달했다.

직원 급여 총액 순위는 삼성전자가 5조1천787억원으로 1위, 다음으로 현대자동차(3조7천45억원), KT(2조124억원), 국민은행(1조8천846억원), LG전자(1조2천269억원), 기아자동차(1조7천9억원), 현대중공업(1조6천862억원), 한국전력공사(1조2천873억원), 포스코(1조1천86억원), 대한항공(9천424억원)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1인당 133억 최고 삼성 계열사 4곳 10위 안에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광주여고	초·중 영어 교육실장 및 교사	대졸/경력1년	1600~1800	07/05	062-955-2960
광주부	의류판매, 매장관리직 여성원	초대졸/경력1년	1200~1400	07/05	062-384-6166
동부회화	광주 고객서비스팀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6	062-220-8500
㈜로티비아베이크샵코리아	로티비아코리아 광주지역 점장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6	051-933-3200
㈜커리어아서치	금호타이어광주연구소 PC기반팀 사무보조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7/07	062-515-0026
연우조경(주)	정규직 조경공사 및 현장관리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07/07	062-515-1446
동우기업	자동화 부품 조립, 설치기사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7/07	062-956-6681
ING생명(본사)	저축성상품[주기연계/연금]고객상담원·월령350만원이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7	02-3452-2612
㈜화인코리아	[생산]관리/[공무/식품개발] 정규직 추가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9	061-330-4523
㈜중원칠강	[경리]/[시공부/판매부/관리부] 하반기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9	062-374-6991
(유)케이티에프풀암프리자	정규직 매장판매 및 전산개통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09	062-654-7100
오월 웨딩컨설팅	웨딩플래너 신입/경력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0	062-233-4050
㈜엔지테크	병원 프로그램 개발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10	062-675-875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급락 코스피

외국인·개인 매도… 어제 17P ↓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미국 증시 하락의 영향으로 코스피가 연일 급락세를 나타냈다.

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06포인트(1.05%) 내린 1,606.54에 마감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1,600대로 밀려난 것은 지난 3월18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 지수는 32.39포인트(1.99%) 내린 1,591.21로 출발한 후 한때 1,580.83까지 떨어졌으나 기관의 매수로 하락폭이 축소됐다. 배럴당 15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둔 국제유가의 급등세로 뉴욕증시가 급락한 점이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았다.

외국인들이 연일 매도 물량을 쏟아낸 가운데 개인도 투매에 동참하는 모습이 감지됐다.

외국인은 4천459억원을 순매도하며 19거래일째 매도 우위를 고수했고 개인도 2천467억원의 순매도를 끊어냈다.

기관만 5천781억원어치의 순매수를 기록했지만 이는 프로그램매매의 영향이 크다. 프로그램은 차익, 비자익 모두 매수 우위로 5천753억원의 순매수였다. 연기금도 1천467억원어치를 ‘사자’에 냈다. /연합뉴스

치솟는 유가

144달러 넘어… 두바이유도